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충현의 만나 2000

가정예배 · 역대상 · 하
구역예배 · 데살로니가전서
남성구역예배 · 마태복음
· 요한복음
· 예레미야애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200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역대상 · 하
구역예배 · 데살로니가전서
남성구역예배 · 마태복음
· 요한복음
· 예레미야애가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하나님의 승리와 성취를 바라며



무더웠던 여름의 열기가 한층 꺾인 9월입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느 덧 풍성하게 맺혀진 들녘의 곡식들이 탐스러워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 세상의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고, 여전히 거룩한 나그네로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더욱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와 관계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도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삶의 거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범죄하며, 결국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지만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인류역사의 중심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신 하나님의 승리와 성취! 이러한 진리와 은혜가 총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각 구역마다 풍성하게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9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역대하 서론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강조된 반면 본서에서는 솔로몬의 치세(B.C. 971-931년)와 르호보암에서 (B.C. 931년) 시드기야까지(B.C. 586년) 유다의 모든 왕들의 역사가 전개된다. 역대하는 비록 이스라엘 왕들이 제외되었지만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사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바벨론 포수의 원인이었다. 본서는 유대인들이 귀국해서 자신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한 고레스 대왕의 조서 일부를 인용함으로 끝맺고 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1:7-12),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5-7장), 스바 여왕의 방문(9:1-12), 바벨론 포수 기간에 대한 예언(36:20, 21) 등이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저자와 기록연대는 역대상과 동일하게 B.C. 450년경 에스라가 기술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인간의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됨을 보여준다.

주요내용

대하1:1-17	솔로몬의 등극	대하26:1-23	웃시아
대하2:1-7:22	솔로몬의 성전	대하27:1-9	요담
대하8:1-9:28	솔로몬의 명성	대하28:1-27	아하스
대하9:29-31	솔로몬의 죽음	대하29:1-32:33	히스기야
대하10:1-12:16	르호보암	대하33:1-20	므낏세
대하13:1-22	아비아	대하33:21-25	아몬
대하14:1-16:14	아사	대하34:1-35:27	요시아
대하17:1-20:37	여호사밧	대하36:1-4	여호아하스
대하21:1-20	여호람	대하36:5-8	여호아김
대하22:1-9	아하시야	대하36:9-10	여호야긴
대하22:10-23:15	아달리야	대하36:11-21	시드기야
대하23:16-24:27	요아스	대하36:22-23	고레스의 조서
대하25:1-28	아마사		

다윗은 몸소 성전 건축에 일념을 보여 자신이 가진 재산을 털어 사 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다윗이 백성들의 봉헌을 촉구하자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는 백성들이 모두 건축 헌금에 참여하였고 '다 즐거이 드렸다(6절)' 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강제에 의한 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요 기꺼이 동참하는 헌금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원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봉헌 참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건축함에 있어 가문 일족이나 특정인에 의 한 성취보다는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참여에 의한 건축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될 성전이 장차 하나님의 중심 임재처로서 전 체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고 국론을 하나로 만들 심장이 될 것이기 때문 이었습니다. 즉 솔로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 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에 동참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1-5절).

다윗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헌신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11절)' 는 고백과 함께, 온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고 여호와와 전을 사모하며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과 드리기를 즐거이 하고 사모하 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이 기쁘게 쓰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을 격려하고 백성들에게 성전 봉헌을 위한 예물을 거둔 후 다윗은 국민적 축제를 벌이고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기사가 사무엘이나 열왕기 부분의 기사와 차이를 갖습니다. 아도니야의 반역 사건(왕상 1:5-10)과 같은 통일 왕국 최초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가지 내분과 복잡한 문제들의 발생을 기자는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17:4-15)에 따라 메시아의 표상으로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될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고, 이것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에 관한 이 특별한 언급을 이해하려면,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의 과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 해야 합니다. 본장에서 다윗 왕조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솔로몬의 즉위가 아무런 반대 없이 축제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같이 소개한 이유가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23-25절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위에 앉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며, 또한 그를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많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국가 이스라엘의 언약을 잇는 정통성을 가진 왕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홀로 경배 받으실 왕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은 40년간의 치리 기간과 노년의 존귀한 생애에 대해 소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왕 사울과는 달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또한 자신의 후손에게 왕위를 물려 줄 수 있었음을 기술했으므로, 얼마나 다윗이 축복된 삶을 누렸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는 29, 30절에서 본서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던 역사적인 원 자료들을 언급함으로써 본서의 역사성과 객관성을 나타내고, 본서가 다윗의 신앙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 방법으로 저술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적이고 헌신적인 성도의 삶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기록자는 비록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게 된 다윗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쓰라린 포로 생활을 겪고 조국에 돌아와 있는 귀환자들 역시, 다윗이 인생의 소망으로 삼았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신정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윗의 신앙적인 삶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모범과 교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삶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06-05-0510: 0000

06-05-0510: 0000

본서는 다윗왕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 역대상에 이어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서술(1-9장)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유다 열왕들의 통치(10:1-36:21)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경위(36:22, 23)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과 본서가 원래 한권의 책이었던 관계로 다윗 언약을 중심한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역대상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공식으로 왕의 직무를 집행함에 앞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올렸습니다. 이는 그가 정치적 왕으로서 그리고 종교적인 책임자로서 직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일천 번제를 드리되 단독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온 회중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그의 일천 번제에 종교적, 정치적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이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번 제가 범 국민적 공식 행사임을 공표 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적들이나 반대자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에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확고한 정치 안정을 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적인 모습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하는 신앙과 무릎 꿇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쉬지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에는 앞단락에서 언급된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7절)과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 장면(8-10) 그리고 선택한 기도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11-13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군왕들은 대체로 자기 왕국을 발전시키고 존영케 하는 수단으로 강력한 군사력 또는 국가 이념과 같은 통치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국가를 운영하는 중심수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지혜를 구하되 인간의 술수나 기교가 아닌 신적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과 당신의 택하신 나라를 운영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통치의 제일 원리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시고 세대를 뛰어넘어 인간 활동의 근원이 되십니다. 솔로몬은 이 같은 하나님께 국가 통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인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합당한 간구로 성도가 드릴 기도의 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89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참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며(마 6:33)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 기도의 모형을 볼 수 있고(막14:32-36) 또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의와 진리로 다스릴 메시아의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 제목 / ① 기도하는 내가 먼저 겸손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나라와 백성을 위한 바른 왕이 되고자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재물과 명성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이를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세속적인 권세와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적 필요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육적 필요들까지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솔로몬은 지혜와 부에 있어 전무후무한 왕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장차 이스라엘 왕국을 커다란 위험으로 몰고갈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여 번영과 풍요를 이루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이론 그 번영과 풍요에 빠져 교만하게 불순종하다가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왕상11:26-36).

본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대상17:14)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키신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의 영광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축복이 오히려 범죄와 타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받은 축복은 이미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어리석음으로 주신 축복을 타락의 도구로 만들지 않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건축준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디딤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바 있습니다(대상 17:11-12).

한편 솔로몬이 후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의 성전관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6절). 여기서 그는 이방 신전처럼 하나님을 모셔두고자 하는 성전이 아니라, 다만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분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소부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초월성과 무한성을 강조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심령 속에 내재하실 수도 있음을 인정한 올바른 신관이며, 또한 성전이 모셔두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장소라는 역대기 저자의 성전관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7:19-22).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목적이 '오직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1절)라는 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우리의 최우선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전은 건축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협조 요청에 후람이 보내 온 답신은 명쾌하고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왕권의 신적 근거를 인정하였고, 선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업이며 기술자들을 보내는 것은 물론 자재들을 지원하겠다고 회신한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다신론적 국가가 상대방 국가와 교류시 상대 국가의 신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일은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후람이 인정하는 여호와에의 존경은 단순히 의례적 수식어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자신들이 도움을 입은바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당시 이 나라는 다윗 왕국에 복속되어 그 혜택을 입은바 있는데 단순히 정치, 경제적 혜택을 입은 정도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영향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솔로몬은 성전건축에 소요되는 인력을 자국 내 이방 외국인들로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의 비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들이거나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영입되어 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방인 왕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이스라엘 내의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세상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엡 2:18). 이방인의 마음까지 움직여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송축 받으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이름으로 온 나라와 족속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서 기자는 열왕기 기자에 비하여 상당히 요약하여 성전 건축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시기는 B.C 967년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통치 기조와 외적으로 팽창된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건축을 시작한 장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시온 산으로도 자주 불리던 모리아 산이었고, 이곳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였던 곳이었는데(창22:4), 다윗은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다윗에게 임재하셨으며 그 때문에 다윗은 이 장소를 하나님의 전이라 명명한 바 있습니다.(대상22:18) 다윗에게 있어서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린 가장 신실한 제사의 터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창22:8-14)이 대신 죽임을 당하였고, 다윗이 인구 조사로 인해 하나님께 범한 큰 죄를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용서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이 용서받게 될 것을 예표함이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장소 선정을 통한 성전 건축의 시작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한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닮아 맡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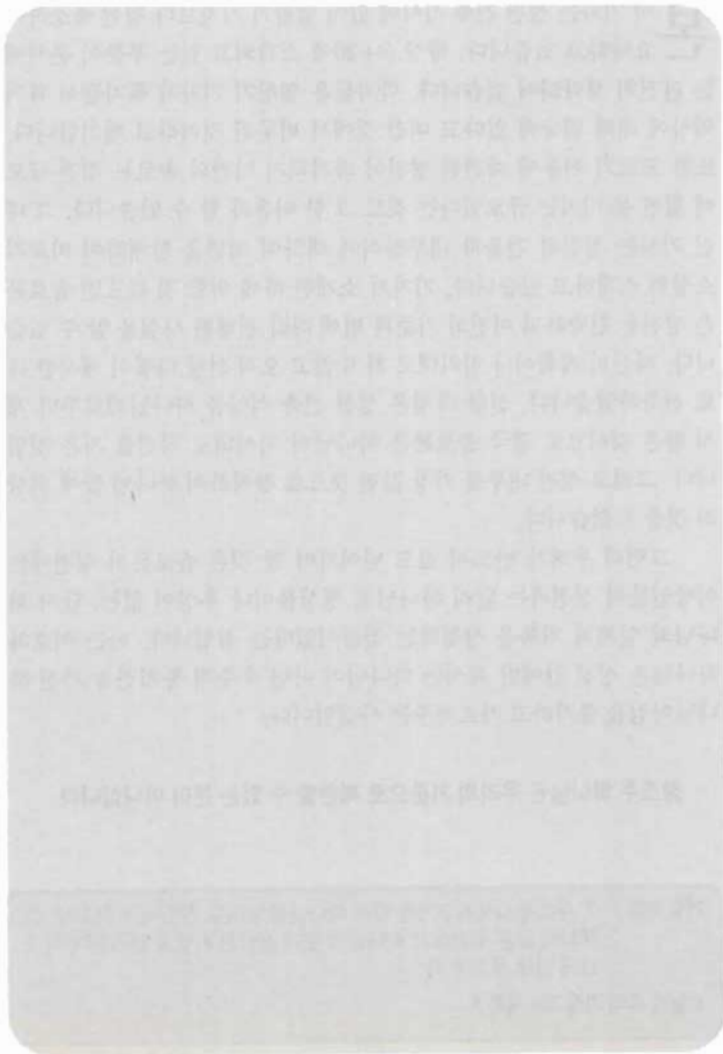
본서 기자는 성전 건축 기사에 있어 열왕기 기자보다 훨씬 축소하여 요약하고 있습니다. 왕상 6:4-20에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본서에는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열왕기 기자가 독자들이 과거 역사에 대해 익숙해 있다고 여긴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포로기 이후에 재건된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의 솔로몬 성전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였다는 것도 그 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기자는 성전의 건물과 내부장식에 대하여 지면을 할애하여 비교적 소상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소개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되 이전의 기준과 법에 따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오직 선왕 다윗이 제시한 대로 건축하였습니다. 선왕 다윗은 성전 건축 식양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은 것이므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를 가장 값진 것으로 장식하여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의 신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물이나 우상이 없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주적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 / 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학 자들에 따라서 본장에 언급된 각각의 기구들이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지 바다나 물 두멍이 죄 씻음을 상징하고 등대는 진리를 비추는 빛으로 상징된다는 사실 정도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각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징성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놋 단을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사장이 몸을 씻는 놋 바다를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해석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또 희생제물을 씻는 물두멍을 죄 씻음의 세례로, 성소를 밝히는 등대는 교회 또는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적극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 비품들의 각 명칭에 개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상징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기물들이 성전의 거룩한 제사에 쓰여졌다는 전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타당한듯합니다. 성전 기구들은 모두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들이 모두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총체적으로 연합하여 성전의 온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영광을 빛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각 기물들을 성도라고 가정할 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성전 행사에 동원되어 쓰여졌듯이 성도들이 역시 연합하고 교회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장래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도들간의 연합으로 하나님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전 비품들과 기구들은 금으로 만든 것과 못으로 만든 것으로 대별됩니다. 놋 제품들은 두로의 후람이 솔로몬의 지시대로 만든 것인데 재를 담아 버리는 술, 제단에서 재를 긁어내는 부삽, 그리고 제물의 피를 담는 대접, 제물을 씻는 물두멍과 그것을 받치는 받침대 등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대체로 성전 밖 뜰에서 사용했던. 반면 성전 내부에서 쓰여지는 비품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최소한 금으로 도금한 것들이었습니다. 분향을 올리는 제단은 재료가 금이었으며 진설병을 올리는 제단 상도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대와 등잔, 회젓가락, 불 집게, 주발, 수저, 불 옮기는 그릇 등이 모두 금으로, 또는 도금된 기물들이었는데 용도에 따라 성전 기구들의 재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놋도 귀한 것이었고 금 역시 귀한 재료였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최고의 값진 것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건물의 화려함이 아닌 자기 백성들의 순결하고 신실한 신앙을 더욱 원하십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헌신의 행위로 승화시켜 성전의 최고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기쁘게 열납하셨습니다(8:10). 결국 솔로몬의 헌신적인 성전 건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헌신된 신앙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의 자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최고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언약궤를 성전 중심부에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봉헌 제전의 첫 번째 행사로 언약궤의 지성소 이전 작업을 시도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다윗왕 당시부터 오벵에돔의 집으로부터 시온산 성막으로 옮겨져 있던 것으로서(대하 15:2), 솔로몬은 이 궤를 옮기는 작업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궤를 잘못 다룰 경우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삼하6:7).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로써 돌연한 사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언약궤 안치에 대한 백성들의 기쁨을 배가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과 백성들의 헌신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열납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는데, 이 사실은 여호와와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사실로 잘 알 수 있습니다(14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전하며 기뻐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통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앙에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자녀인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게 하옵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감사와 찬양은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외심과 신앙심이 어우러진 절정으로서 하나의 교향악이기도 합니다. 장엄하고도 감동이 넘치는 이 찬양 행사는 제사장들은 반차를 따르지 않고 백성들과 성가 담당자들 모두가 일체되어 함께 치렀습니다. 성전 봉헌식과 언약궤의 안치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행사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참여하고 다양한 번제들로 함께 했던 이날의 찬양 행사는 솔로몬 왕국의 초기에 있어 종교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 모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일치감을 확인시켰으며, 정치적으로는 솔로몬 왕조의 신정 체제를 알림으로써 지파간의 알력이나 분열을 방지케 되었습니다. 언약궤 안치 이후 올린 이 찬양제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시어 제사 열납을 표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출 19:5). 이와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성도의 기쁨을 나타내며 이들에게 이런 기쁨의 계기를 준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제목 / ①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막 대한 인력과 자재를 동원하여 장기간의 공사를 한 끝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간의 수고와 감회를 새삼 회고해 볼 때 스스로 자고하여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전 역사가 하나님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감사하는 신앙의 성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임을 고백하고 회중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간증하였습니다. 그의 이 같은 자세와 간증들은 신정 왕국의 대왕다운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주역으로서 자신의 영예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셨고 완성된 성전 또한 인간의 계획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 설계를 내리셨고 주변 환경을 움직여 협조하도록 하심으로써 가능하였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적 지명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대왕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백성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영광을 하나님과 다윗에게 돌리는 솔로몬의 겸손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분께 순종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관이심을 믿고 그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함시다.

기도제목 / 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봉헌사를 한 것(1-11절)에 이어 드리는 기도로 다윗 왕조의 보존을 위한 기도(12-17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18-31절), 이방 백성을 위한 기도(32, 33절), 전쟁의 승리와 징계를 받을 경우의 회복을 위한 기도(34-39절), 기도의 결론(40-42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전반부(12-17절)에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상17:12)을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대상 17:9-14)을 지키시고 약속된 축복들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18-42절)에서는 솔로몬은 이제부터 누구든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도록 소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구속 사역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 사이의 교제와 화목을 위한, 누구에게든지 그 문이 열려 있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즉, 복음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의 성격은 제사장의 중보 기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를 위한 사랑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계명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빛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응답하신 것은,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성전을 하나님 자신과 인간들 사이의 교제와 화목의 장소로 허락하시며, 특히 성전을 통한 기도예 친히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12-18절). 하나님은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종종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셨는데(레9:23) 이 때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초자연적 현상입니다(5:14).

한 편 본문과 병행구인 왕상8:54-61에는 솔로몬의 간구에 이어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첨가되어 있고 본문의 불로 응답되는 장면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제사장적 관심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제사장의 고유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월권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 다. 대신 불의 응답이 솔로몬의 제사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올바른 제사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증거로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요1:14)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본질상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나 중보자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4:16).

자녀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 분을 닮아 영원하게 하옵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AF-01:15형:문명

문명:문명:문명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에 걸쳐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어 일주일 간의 장막절을 지켰는데, 이와 같이 성전 낙성식과 장막절을 연속적으로 지킨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 성전은 그의 재위 11년 B.C. 959년 8월에 준공되었는데(왕상6:38), 7월 15일부터 한주간 동안 지켜지게 되는 장막절과 나란히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려고 일부러 성전 완공 1개월전에 낙성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성전 낙성식은 이리저리 이동되었던 성막 대신에 고정된 건축물인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행사였기에 성전 낙성식은 장막절이 갖는 의미처럼, 더 이상의 이동이 없는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착과 안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통치하의 이스라엘의 영토(8절)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창15:18)과 같다는 사실을 보아서도 잘 나타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두 행사의 연관성과 상징성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낙성식을 성전 완공 1개월 전에 장막절과 함께 거행한 것입니다. 이는 성전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류가 참된 장막절이 상징하는 구원과 안식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성식 축제를 통하여 우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된 신앙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도의 헌신된 신앙의 삶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성도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은 5:2로 시작된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기록으로서 낙성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솔로몬의 기도에 하늘의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1-3절)서 성전 낙성식 후에 친히 현현하셔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구성은 신28:1-68에 언급되어 있는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형식을 따라서 축복에 대한 약속(12-18절)과 저주에 대한 경고(19-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이른바 '성전 언약' 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주신 본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36:11-21)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대표적인 실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방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전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20, 21절)

결국 우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본문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서는 무엇보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삼상 15).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와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현지사역이 더욱 알차지고 확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 금까지 성전 건축(대하 3:1-5:1)과 봉헌(대하5:7-7:22)을 끝내고 본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솔로몬의 통치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치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고 본장에서는 4가지로 요약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1-6절은 성읍건축, 7-10절은 가나안족 징발, 11-16절은 종교생활, 17-18절은 경제적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자가 솔로몬의 치적 자체를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3장 이후에 소개했던 바 성전 건축을 이룩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 방면에서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 주기 위한 실례로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여러 성읍의 건축과 재건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설된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용 성읍(2절)과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해 두는 국고성(4절), 그리고 요새화된 군사 기지였던 병거성과 마병의 성(5,6절)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왕의 업적이 솔로몬 개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기인된 것임을 앞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수단)와 허용구 선교사(르완다)가 현지이 적을 잘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의 치세 기간 동안 20년간 계속된 성전과 왕국 건축(3:1-7:22) 그리고 여러 성읍들의 건설(8:1-6)에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필요한 노동력을 가나안 정복 당시에 멸절되지 않고 살아 남아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충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임명하였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같은 동족은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레25:39-46)을 솔로몬이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과, 성전의 건축이나 왕궁의 건축이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선한 통치자라는 사실과 아울러 이스라엘 왕국이 구가한 최대의 번영이 백성들의 희생을 딛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인을 종으로 삼은 것은 노아를 통해 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창9:25)이 성취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이 택한 백성과 족속들을 구별하시고 끊임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미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형제를 사랑하기 보단 보이지 않는 종속 관계 속에서 내 형제를 종으로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에서 빛을 잃고 짙맛을 잃어가는 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② 이수경, 오경진, 한정은 평신도 단기선교사들(수리남)이 건강하고 원주민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앞서 언급한 화려한 치세 업적과 왕국의 번영 속에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솔로몬이 부친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아 경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 모세의 규례에 따라 3대 절기(레23:1-44)를 시행하고 성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윗이 정한 규례(대상24-26장)에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였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본서의 제사장적 관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의 딸과의 정략 결혼이 온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음에도(왕상3:1-3) 가능한 한 신앙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11절). 즉 11절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기는 했으나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 머물지 못하게 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솔로몬의 과오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서에는 언급이 없는 제사장의 반열을 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병행구인 왕상 9:25에는 솔로몬이 3대 절기를 준수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솔로몬이 모세의 규례에 순종하여(레 23:1-37) 안식일과 월삭에도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1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솔로몬의 경건 생활 말기에 성전 완공 사실을 재언급하고(16절) 다음 단락에서 다시 해상무역에서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으로써 저자는 성전 완공이나 해상무역의 성과가 솔로몬의 경건한 신앙 생활의 결과라고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② 권영일, 박수인, 추은희 평신도 단기선교사(수단)이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컴퓨터학교 사역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1:1절로부터 시작된 솔로몬 통치 시대의 마감을 서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 그리고 그 왕국의 번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삼하7:12-16, 대상17:11-14)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대상1:11, 12)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스바 여왕의 고백(8절)을 통하여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의하여 선포될 것을 보게 됩니다(행2:7-13).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마5:16).

한편 스바 여왕이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참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스바 여왕을 비유로 들어 책망하셨습니다(마12:42). 인간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 먼길을 찾아 나선 스바 여왕에 비해, 솔로몬보다 더 큰(눅11:31)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은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그 죄의 대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늘 만날 수 있는 성경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지혜의 말씀을 듣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문은 솔로몬이 과연 어느정도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소개함으로써, 제 1장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솔로몬의 통치시대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존귀까지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이 성취된 것입니다(1:11, 12). 실로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무역으로 인한 이익금(21, 28절)은, 그의 왕국에서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사용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27절). 이 같은 예루살렘 왕국의 영광과 부귀의 모습(15-21절)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끝날에 임할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계 21:18, 20)

한편 솔로몬이 통치한 영토(26절)는 선왕 다윗이 정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언약의 왕조인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창 15:18). 이제 까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았듯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여호와께로부터 기인된 것이므로 이에, 그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들이 여호와께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와 영광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솔로몬처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여호와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하는 물음부터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우리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② 이순주, 황경식 평신도 단기선교사들(우간다)과 추진희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 36 -

본 장에서부터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본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범죄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도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삼하7:14-17)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보존하신다는 사실과 그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러한 남유다의 역사의 서론 격으로 B.C.1050년부터 약 3대에 걸쳐 통일 왕국을 유지했던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르호보암에 대한 백성들의 유회정책 요청(1-5절)과, 노인들의 충언과 친구들의 간언(6-11절),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12-15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원인이 솔로몬의 학정에 시달린 백성들의 불만(4절)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14절), 그리고 여로보암과 열지파의 반란으로(15절)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왕상11:11)가 성취된 것입니다. 한편 르호보암의 결정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를 무시한 것으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대로 따르는 통치가 아닌, 자기 본위로 통치하겠다는 불신앙의 결정입니다. 반면 다윗이나 솔로몬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이 모두 인정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시1:4).

기도 제목 / 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② 평신도 선교사들(일본의 유병세, 리비아의 이병석)과 협력성교사들(수단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르호보암의 억압 정책에 반발하여 다윗 왕가의 유다지파와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 지파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16절)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집' (19절)을 배반하였는데, 이런 백성들의 구호는 단순히 르호보암의 학정과 왕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 자체를 거부한 것이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해버린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은 르호보암과 똑 같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책임은 솔로몬과 르호보암만의 죄뿐 아니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편 본서의 저자는 여로보암의 반란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타락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다윗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의 신앙을 본받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열 지파의 배반을 통해서 다수의 뜻이 꼭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요구가 옳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10지파의 행동은 다윗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의 5-23절은 역대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이 받은 축복을 강조하려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남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초기 통치 3년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시기에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1-4절). 르호보암은 분열한 북쪽 지파를 징벌할 목적으로 동쪽 상잔의 전쟁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24절) 저지 당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왕상11:31)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패역한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동등시하여 '형제'라고 부른 하나님의 말씀(4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월남이 있었습니다(13-17절). 이들의 이동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향과 기업을 버리고 유다로 온 자들처럼 하나님만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순전하게 섬기기 위해 그 방해되는 요소를 미련 없이 버리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이 이방종교가 창궐했던 갈대아 우르(창12:1-4)를, 롯이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던 것처럼(창19:12-22) 날로 세속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이두운 세력으로부터 결연하게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우상들을 멸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11장에 이어 여로보암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격상 전 장과는 대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장은 하나님의 예언(11:1-4)에 순종한 르호보암이 받은 축복(11:5-23)을 주로 묘사하였으나, 본 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남으로 받은 징계(1-12절)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장은 내용상으로 르호보암의 타락과 애굽왕 시삭의 예루살렘 약탈(1-12절), 르호보암의 통치 연도 및 평가(13, 14절), 르호보암의 행적과 죽음(15, 16절)으로 나뉘집니다.

특히 본서 저자는 시삭 침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르호보암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함(1, 2, 5절)으로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다는 진리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시나, 회개 할 경우 은총을 베푸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가문의 신앙을 본받고 자신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총을 의지하여 새로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케 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보여 줍니다. 즉, 택한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이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한 르호보암과 같은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범죄치 않도록 도우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크 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의 2대 왕이 된 아비야(B.C 913-910)의 통치를 기술하고 있는 본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발발하였던 전쟁을 중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 기사를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남왕국과 북왕국의 신앙 상태가 상당히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야는 그의 긴 연설(4-12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성직자 추방, 성직 매매를 신랄하게 공격하고 난 다음 남유다 백성들의 정규적인 제사, 하나님의 계명 준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근거해 볼 때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군사적인 충돌이었으나, 이면적으로는 타락한 종교 대 참 여호와 종교의 일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군사의 수에 있어서 열세(3절)를 면치 못했고, 전술상으로도 적군에게 전·후방이 포위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적군 50만을 섬멸하고(17절), 많은 성읍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19절) 여로보암을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뜨리는(20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같은 승리의 원인은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11, 12, 18절).

동일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주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에게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실정을 범하고(왕상14:21-24, 15:1-9), 주변 국가와 빈번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전임 두왕(르호보암, 아비아)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사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실시하였는데 ①외적으로는 우상 자체를 파괴하고(3절), ②내적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준수하게(4절)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진정한 교회 개혁이 교회 제도나 정치의 구조적, 형태적 개조와 같은 외적인 갱신뿐만 아니라 말씀を通한 성도 개개인의 개심과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줍니다. 우리는 아사의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참 여호와와 신앙을 회복토록 한 아사의 신앙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은 행동을 수반하는 신앙으로 나라를 든든히 하는 국방의 의지(7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아사의 통치 기간동안 유다는 안식을 누리면서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외세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다왕 아사가 유다가 적의 침공으로부터 평안할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이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에서 아사왕의 신앙을 나타내는 기도를 볼 수 있는데, 전쟁에서 그는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찾고 그를 바로 섬기면 그는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사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당신께 오는 자에게는 참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서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타락한 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서론

번창하며, 눈에 띄며, 그리고 완전한 이교도의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다. 사도행전 17:1-14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으며, 특별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과 자신이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였다. 그 결과는 즉시로 나타났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다. 후에 바울은 베뢰아로 갔고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때가 A.D.53년경이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은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자들을 박해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3:3-5). 또한 경건한 삶에 대하여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으며(4:1-8),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 매일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기록하였다(4:11,12).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긴 전에 죽었던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였다(4:13,15).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와 함께 보냈던 즐거웠던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박해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과 인내의 본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전

하던 바울에게 언제나 큰 힘과 위로가 되곤 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함께 구역에서 배우게 될 성도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에게 소망과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과 인내로 서로를 세워가는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기대한다.

데살로니가전서 기본구성

1장-3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개인적 관계
1:1-10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2:1-20	유순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3:1-13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4장-5장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실천적인 훈계
4:1-18	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5:1-28	그러므로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제 1 과: 데살로니가전서(1)

우리과 주를 본받는 자

찬 송 / 507장
읽을 말씀 / 1장
공부할 말씀 / 1:2-10

먼저 읽기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움과 원망이 남게 되는 관계가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런 의미 없이 잊혀져버리는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져서도 그럽고 소중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면 적어도 마지막에 해당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두고두고 기억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글을 통해 격려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구역식구들을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감사와 서로에 대한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

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주간 떨어져 살아가는 동안에도 감사함으로 중
보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2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이유

1.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은 애정은 무엇입니까?

① 2절a -

② 2절b -

2.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바울이 이러한 애정을 보이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① 3절a -

의미(롬1:5) -

② 3절b -

의미(고전13:4-7) -

③ 3절c -

의미(히6:18-20) -

[4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3.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① 5절a -

② 의미(눅4:18,19) -

4.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① 6절a -

② 6절b -

5.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① 7절 -

② 8절 -

6.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9절 -

② 10절 -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는 감사거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역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과 같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구역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십니까? 각자가 자신이 속한 곳에서 느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이 질문들에 대해 아무런 기록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었으며, 분명한 신앙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만일 다른 믿는 자들이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나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어떤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역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2 과: 데살로니가전서 (2)

유순한 유모처럼

찬 송 / 270장

읽을 말씀 / 2장

공부할 말씀 / 2:1-12

먼저 읽기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을 이끌고 가는 특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곧 동기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목적과 방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모의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시키는가에 따라 자녀를 양육시키는 목적과 그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애쓰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생애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애쓰는 모든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는 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역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 정리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절에서 2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

1.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2절a(행16:19-40)

② 의도(2절b)

2.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에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2절b

② 이유(막1:14)

[3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복음 사역의 동기

3.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돌보는 복음 사역의 동기에 대해 소극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 ① 3절
- ② 4절
- ③ 5절a
- ④ 5절b

4.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어떠한 적극적인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 ① 2절
- ② 7절
- ③ 8절
- ④ 9절
- ⑤ 10절
- ⑥ 11절

5.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변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5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싸움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생명을 건지는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 싸움이 싫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셨고, 승리해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종든 삶은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적인 싸움터에 나가는 것에 대한 선택은 없습니다. 단지 순종과 불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라는 명령에 대해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해 보시겠습니까?

3.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정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구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근본적인 동기가 혹시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은 아니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기적이고 그릇된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좋아하고, 몰라주면 섭섭함 내지는 불만스러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동기는 솔직하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다함께 주님의 질문에 대해 잠시 묵상을 통하여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제 3 과: 데살로니가전서(3)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찬 송 / 383장
읽을 말씀 / 3장
공부할 말씀 / 3:1-13

먼저 읽기

우리가 가장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프다면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할 것이며, 대신 아픔을 짊어질 각오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아이를 키워 본 부모라면 누구나 실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친 환난에 대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들은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이들이었고(2:8), 영적인 자녀들이었으며, 그이 영광이며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2:20). 그러나 그 자신이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극한 사랑에 그들 역시 사랑으로 화답합니다(3:6).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 교훈된 진정한 영적인 교제라고 확신합니다(히10:24,2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밤에 잠들지 않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다른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주님처럼 다른 영혼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이러한 관심과 중보 기도의 끈에 묶여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관심과 다툼이 물러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구역예배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욱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절에서 5절] 디모데를 통해서 돌봄

1.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친 핍박을 위해 아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① 2절a
2.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① 2절b
② 3절
3.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게 될 환난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① 4절

. ② 5절

[6절에서 13절] 디모데를 통한 기쁜 소식과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4.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는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① 6절a

② 6절b

5.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① 7절

② 8절

③ 9절

④ 10절

6.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걸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① 11절

② 12절

③ 13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교회는 결코 혼자서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혼자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지체 또는 동역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일해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① 우리의 구역의 모임 목적은 무엇인가?
- ② 우리 구역의 구성원들은 복음 전파와 양육을 위한 동역자인가?
그렇다면 어떤 사역에 함께 임하고 있는가?
- ③ 우리 구역의 구성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인가?
- ④ 우리 구역의 구성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아니면 소외되는 사람이 많은가?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자 마자, 즉시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와는 달리 현대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기도 대신에 수다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과 구성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식에 대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놓고 입씨름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아름다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루시도록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나 교구 또는 구역의 어렵고 힘든 일, 또는 감사할 일들을 간략하게 말하고 중보기도의 무릎을 꿇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 과: 데살로니가전서(4)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찬 송 / 289장
읽을 말씀 / 4장
공부할 말씀 / 4:1-18

먼저 읽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관계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4장과 5장을 통하여 신앙의 삶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 증명되듯이, 믿음이란 삶을 통하여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그 당연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요15:5).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중심에 계신다면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맺으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

별된 삶과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담대함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점점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전환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절에서 8절] 기록 하라

1.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주 예수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① 1절b

② 2절

2.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① 3절a

3. 사도 바울이 한 단어로 표현한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① 3절b

② 4절

③ 5절

④ 6절

6.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9절b -

② 10절a -

7.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여 더욱더 구체
적인 적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① 11절a

② 11절b

③ 12절a

④ 12절b

[13절에서 18절] 서로 위로하라

8.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합니
까?

① 13절a

② 13절b

9.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다시 살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
하고 있습니까?

① 14절a

10.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 ① 15절
- ② 16절
- ③ 17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종말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요청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배경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에 대한 궁극적인 종말 사상 때문이었으며, 두 번째는 핍박 때문에 언제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개인적인 종말의 어려운 상황, 이 두 가지가 모두 연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남은 시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시간에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시간이 정말 거룩한 시간들인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2.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성에 대한 순결, 말은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성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에 대한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의 직장에서든지 교회의 일에서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만일 게으름을 피우고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형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몹시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면 자신과 가정의 생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게으름을 피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러한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피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구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 부활은 죽음의 문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 없이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초대교회의 가장 뜨거웠던 확신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다녔고, 핍박으로 인한 순교의 현장 속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살기 편해지고 윤택해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차로 상실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으시고 부활에 대한 진리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 5 과: 데살로니가전서(5)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찬 송 / 391장
읽을 말씀 / 5장
공부할 말씀 / 5:1-11

먼저 읽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를 이렇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서 생활의 모든 것을 내동댕이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재림의 시기를 정한 것도 무식함이지만, 정작은 삶을 포기한 것도 예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무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결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진리와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는 자들로서의 신앙과 삶에 결코 모순이나 균열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인류의 종말은 그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확신하며 올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2절

2.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유대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① 3절a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표현을 했습니까?

① 3절b

② 사21:3

4. 사도 바울은 4,5절에서는 불신자들에게 홀연히 임하는 재림으로 인한 멸망에서 성도들은 제외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① 4절 -

② 5절

③ 의미

[6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자세

5.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① 6절

② 의미(고전9:25)

6. 사도 바울은 7절에서는 6절과는 대조적으로 예수의 재림 때에 멸망 당할 자들의 모습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① 마24:48,49

② 마26:45

7.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② 8절

8. 사도 바울은 9,10,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 성도들의 위치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① 9절 -

② 10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주 간절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펄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쳐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재림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며,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재림은 죄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죄가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는 이상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죄의 완전한 도말없이는 결코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완전한 천국의 도래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 같습니까?

2.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의 입장은 삶에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선 재림을 확신하는 사람과 재림을 불신하는 사람과는 그 삶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전자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재림에 대해 바른 입장을 소유한 사람과 잘못된 입장을 가진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전자는 자신의 삶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입장은 어떤 것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5 과

온 유

찬 송 / 319장
읽을 말씀 / 마11:28-30
요2:13-17
애3:19-23

1. 당신의 삶을 통해서 돌아볼 때에 온유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마11:28-30을 읽어봅시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 읽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요2:13-17을 읽어봅시다.

13.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3.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성령의 전으로 부르신 당신의 삶속에 찾아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지 나누어 봅시다.

4. 읽은 말씀에서 보게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하다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애3:19-23을 읽어봅시다.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 중심에 회상한즉 소망이 있사옵은
22.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5.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여 가는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을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낙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가 소망을 가지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22,23절)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 고전13: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엡4: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골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 갈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하라.

6.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움은 맥빠진 부드러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온유는 본래 야수와 같은 강함이 있지만 조련사에 의해 잘 길들여짐으로 부드러워진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오래참고 용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범죄한 자에 대하여 적당히 눈감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적극성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갈6:1) 당신의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온유한 삶을 어떤 것입니까?

7.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바와 기도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MEMO

MEMO

17/17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0년 9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김동하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